



유년부 약 속

-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10월 교육 내용	04
10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10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10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10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10월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5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55
어린이 QT God's Time	56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64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65
10월 위드포토	66
10월 추천도서	67
10월 위드스티커	68
10월 교육활동지	69



암송 구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사무엘하 22:2 -

♥첫째주♥

“다윗과 요나단”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0:17)

*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둘째주♥

“사울을
살려준 다윗”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무엘상 24:17)

*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셋째주♥

“궁흘의 마음”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9:13)

* 다른 사람을 살펴주고 보살펴주세요.

♥넷째주♥

“다윗의 회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13)

*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해요.

♥다섯째주♥

“성전을 준비한
다윗”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역대상 22:10)

*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요.

실천 내용

1. 이번 한 달 동안 다윗의 일대기를 사무엘상, 하를 통해 읽어보기
2.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인 삶을 살기 시작하기

우드

WIT

10월 첫째주

2021년 10월 3일~9일



memory time



다윗과 요나단

첫째주

♥ 주제 : 다윗

♥ 암송구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0:17

♥오늘의 주제 :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상 20:1-42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요.

★ 말씀 나눔

①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무엇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나요? (17절)

人 口

②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사이에 영원히 누가 계시나요? (42절)

○ ㅎ ○

★ 교육활동 - “믿음 안의 우정”

준비물 - 활동지, 가위, 필기도구, 양면테이프나 풀(접착제)

- ① 위드지에 있는 그림을 가위로 오려요.
- ②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떠올리며 나와 가장 친한 내 친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아요.
- ③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친구 사이가 되도록,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기로 다짐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SIDE

farm



첫째주

♥ 주제 : 다윗

♥ 암송구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

▷사무엘상 20:17

♥ 오늘의 포인트 :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상 20:1-42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후 사울왕의 궁전에서 살게 되었어요. 왕궁에서 만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아끼고 귀한 것들을 나눠 가지며 좋은 친구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한 무리의 여인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까 두려워져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윗이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자기 생명을 아끼는 것처럼 다윗을 아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친구 사이는 바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돋는 사이예요. 내가 먼저 친구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돋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 곁에 있는 친구를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Q 1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친구는 누가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Pray 나에게 허락해 주신 친구들을 기억하며 먼저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with
말씀

누가복음 11:37-54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37.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 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38.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39.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40.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42.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43.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 받기를 좋아한다!
44.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 한다!”
(생략)
52.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53.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양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물어붙이기 시작하였다.
54.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악독: 마음이 흉악하고
독함

자선: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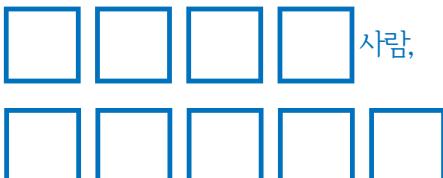
양심: 원한을 품고 복수
하려고 벼르는 마음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으로 보고 이상히 여겼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38절)



2.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누구, 누구인가요? (43, 52절)



with
생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집에서 같이 점심식사 하시기를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서 식사하실 때 먹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자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자신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손을 깨끗이 씻었으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겉모습이 깨끗하다고 자랑 하지만, 속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with
결심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예배와 현금, 교회의 생활을 잘한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해 드러나야 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12:1-12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밝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2. 가려 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 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3.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4.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5.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 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날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7.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9.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10.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11.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12.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위선 : 겉으로만 착한
체함

경계 :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함

골방 : 큰 방의 뒤쪽에
딸린 아주 작은 방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1절)

바리새파 사람의

		곧	
--	--	---	--

2.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며,
우리를 귀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5-7절)

--	--	--

with
생각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교사들에게 마음과 펑박을 받았어요. 율법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따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위선을 경계해야 한다.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 너희의 목숨만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 하여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너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니 용기를 내거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바리새파 사람과 같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바리새파 사람의 위선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12:13-21 “탐욕을 멀리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3.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1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 배인으로 세웠느냐?"
15.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16.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17.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18.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마다 쌓아 두겠다.'
19.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20.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밤에 네 영혼을 네께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유산 :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탐욕 :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소출 : 논밭에서 나는 곡식

곳간 : 물건을 간직하고 두는 곳

with
관찰

1.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형제에게 명해서 무엇을 나누 주라고 부탁하였나요? (13절)



2.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 넣으세요. (15절)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with
생각

예수님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제 형제에게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너에게 나누어주라고 명령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 탐욕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with
결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똑똑하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해도 오늘 죽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일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삶과 생명은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탐욕을 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에 욕심내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2:22-34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나?
-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
-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 하느냐?
-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하였다.
-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 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수명: 사람이 살아있는
햇수

길쌈: 실로 옷을 만드는
일

영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

자선: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줌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 넣으세요.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2.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 있는 곳에 너희의 ○○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어요. 보기를 보고 순서대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34절)

- | | |
|-----------|-----------|
| ① 몸 - 마음 | ② 가족 - 집 |
| ③ 재물 - 마음 | ④ 교회 - 예배 |

with
생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아름답게 돌보시듯 너희의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필요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구하여라. 그리고 너희의 기진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돌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with
결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먹고, 입는 등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걱정 속에 빠지면 점점 두려워지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지요.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 노력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것이에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 사무엘하 22:2 -



월드
WORLD

10월 둘째주
2021년 10월 10일~16일



memory time

사울을
살려준 다윗

둘째주

♥ 주제 : 다윗

♥ 암송구절 “다윗에게 이르되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무엘상 24:17

♥ 오늘의 주제 : 사울을 살려준 다윗 ▷사무엘상 24:1-22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 말씀 나눔

- ① 다윗이 숨어있던 곳은 어디였나요? (1절)

○ ㄱ ㄷ

- ② 다윗은 사울을 왜 살려두었나요? (10절)

○ ㅎ ○ 의 ㄱ ㄹ ㅂ ○ 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 교육활동 - “용서버블 그림그리기”

준비물 - 종이컵 여러 개, 여러 색상 물감, 빨대, 주방세제, 물, 도화지

- 1 종이컵에 물감을 넣어주세요.(종이컵 하나당 한 가지 색상)
- 2 1번에 주방세제와 물을 적당히 넣어주세요.
- 3 종이컵 안에 세제와 물을 섞은 뒤 후~하고 바람을 불어주세요
*마시지 않도록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해요.
- 4 거품이 올라왔으면 도화지를 종이컵 위에 대고 거품을 찍어주세요.
- 5 다른 색도 여러 개 찍어주세요.
- 6 거품 자국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 7 커지다가 다시 줄어들고 없어지는 거품처럼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SDAY

Family Time



둘째주

♥ 주제 : 다윗

♥ 암송구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무엘상 24:17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사울을 살려준 다윗 ▷사무엘상 24:1-22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피해 여기저기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느 날 사울 왕에게 한 부하가 다가와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이 있다는 ‘엔게디’ 땅으로 갔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다윗을 쫓고 있던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동굴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지요.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어서 죽이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며 죽이지 않고 살려 두었어요.

혹시 내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기 힘든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 친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길 소원해요.

Q 1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론하기

Pray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를 내 먼저 용서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2:35-48 “슬기로운 청지기처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끼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36. 마치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37.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38.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39.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41.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2.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3.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4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혼인: 결혼

동이다: 끈 등으로

감거나 둘러 묶다

1.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우세요.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가을 것인가 때문이다.”

2.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요? (42-44절)

신실하고 슬기로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함을 말씀하신 이후 이어서 혼인 잔치에 간 주인과 슬기로운 청지기(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혼인 잔치에 참석하러 간 주인이 언제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릴지 모르니,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우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청지기(종)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리고,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올바르게 가꾸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다하는 것이에요.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백성답게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2:49-59 “나에게 가장 옳은 일은?”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49.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불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50.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51.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54.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55.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56.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58.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처넣을 것이다.
5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문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분열: 갈라져 나뉨

맞서다: 서로 굽히지 않고 마주 겨루어 버티다

분간: 사물이나 형편을 구별함

1. (0/X 문제)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49절)



2.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우세요. (57절)

“어찌하여 너희는 을 스스로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고, 세상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중에 오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했어요. 불은 바로 성령님을 말해요. 세상의 분열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나눔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보고 날씨를 분간할 줄 알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시며 옳은 일을 분간하고 알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해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세상에는 우리를 흘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삶에 있어 가장 옳은 일은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며 성령으로 세례받아 새롭게 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해요.

한줄 기도 :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3:1-9 “회개하지 않으면.”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바로 그 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열여덟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5.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6.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9.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학살: 가혹하게 마구 죽임

변: 갑자기 생긴

나쁜 일이나 괴이한 일

with
관찰

1.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로마 총독은 누구인가요? (1절)



2.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3, 5절)



with
생각

사람들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일과 실로암 탑이 무너져 사람들이 죽었던 일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 죄인이라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일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 무화과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해 짹어내 버리려고 하자 종이 거름을 주고 다시 잘 키워서 1년만 더 기다리자고 한 이야기였어요.

with
결심

사람들은 빌라도 사건과 실로암 탑 사건을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아 죽은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만 죄인이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으니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누구라도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지요.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오늘 지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3:10-17 “병에서 풀려난 여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0.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11. 그런데 거기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12.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13.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4.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15.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6.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병마: 병을 악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엿새 : 6일



with
관찰

1. 예수님이서 병을 고쳐주신 여자는 몇 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나요? (11절)

- ① 15년 ② 16년 ③ 17년 ④ 18년

2. 예수님이서 여자의 병을 고쳐주신 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10, 14절)



with
생각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거기에는 18년이나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지요. 그 여자는 허리가 굽어 있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서 여자를 보고 ‘병에서 풀려났다’ 말씀하시며 손을 얹으시자 여자는 곧 병이 나아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모습을 본 회당ungan은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병을 낫게 한 예수님을 보며 화를 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서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도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데 사람을 고치는 것은 더 합당한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졌고,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기뻐했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는 여자의 몸을 펴 주시고, 18년 동안이나 이어진 병 때문에 괴롭고, 외롭고, 아팠던 마음과 영혼도 치유해 주셨어요. 여자는 자유로워진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마음과 몸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이에요(창 2:7). 나를 살리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 사무엘하 22:2 -





10월 셋째주

2021년 10월 17일~23일



Memory time

긍휼의 마음

셋째주

♥ 주제 : 다윗

♥ 암송구절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9:13

♥ 오늘의 주제 : 긍휼의 마음 ▷사무엘하 9:1-13

♥ 오늘의 포인트 : 다른 사람을 살펴주고 보살펴 주어요.

★ 말씀 나눔

① 므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6절)

○ L C

②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무엇을 베푼다고 약속했나요? (7절)

○ え

★ 교육활동 - “나도 므비보셋?”, “내가 다윗?”

-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설교를 기억하며 므비보셋과 다윗 역할극을 해 보아요.
- 왕이 되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므비보셋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 왕, 몸이 불편한 채로 외롭게 지냈지만 왕의 은혜를 받은 므비보셋의 마음을 떠올리며 역할극을 해 보세요.
- 내가 므비보셋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친구, 가족과 나누어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K's Family



셋째주

♥ 주제 : 다윗

♥ 암송구절 :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9장 13절

♥ 오늘의 포인트 : 다른 사람을 살펴주고 보살펴 주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궁흘의 마음. ▶사무엘하 9:1-13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언젠가는 자비를 베풀겠다고 약속했어요. 요나단에게는 므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므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인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때 므비보셋의 유모가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 떨어뜨려 그는 다리를 다쳤어요.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한 약속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므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소중하게 여겨주었어요. 사울의 땅이었던 지역을 다시 돌려주고,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했어요. 마치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 주변에도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씩씩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살펴주고 보살펴 주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도와주는 작은 손길 하나가 친구의 마음에 감동을 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요.



Q 1 나는 누구를 살펴주고 싶나요?

Pray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이 필요한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3:18-21 “하나님 나라는 나로부터!”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19.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20.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21.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서 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누룩: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효소로 사용하는 것



with
관찰

1.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신가요? (19, 21절)



2. 겨자씨와 누룩은 각각 어떻게 되었나요? (19, 21절)

- ① 겨자씨 - 땅에 떨어져서 새가 먹었다, 누룩 - 부풀지 못했다.
- ② 겨자씨 -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누룩 - 가루 속에 섞었더니 부풀어 올랐다.
- ③ 겨자씨 - 겨자가 되었다, 누룩 - 가루 속에 섞었더니 사라졌다.
- ④ 겨자씨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누룩 - 다른 색으로 변했다.

with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의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땅에 심은 겨자씨는 가지가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시원하고 좋은 쉼터가 되었어요. 작은 누룩은 밀가루 속에 섞여 반죽을 했더니 반죽을 부풀게 해 맛있는 빵이 되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심은 작은 겨자씨가 커다랗고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 작은 누룩이 부풀어 맛있는 빵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대한 영향력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시키는 것! 그 위대한 일이 바로 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제가 도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3:22-30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2.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23.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 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25.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6. 그 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27.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28.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29.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30.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불의 : 의리, 정의에
어긋남, 옳지 않은
행동

with
관찰

1.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적는지 물으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대답하셨나요? (24절)



2.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워 넣으세요. (30절)

“보아라, 가 가 될 사람이 있고,
 가 가 될 사람이 있다.”

with
생각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집주인 비유를 통해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려도 주인이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고,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유대인이라고 모두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셨어요.

with
결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돋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우리를 안타깝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믿음의 실천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3:31-35 “**탄식**하시는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31. 바로 그 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해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33.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니!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35.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 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탄식: 슬퍼서 한탄하여
한숨을 쉼

파송: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

with
관찰

1. 바리사파 사람이 예수님께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고 했나요? (31절)



2. 예수께서는 어떤 동물을 예로 들어 비유하시며,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품으려 했으나 예루살렘이 원하지 않았다고 하셨나요? (34절)

- ① 수탉 ② 젖소 ③ 암나귀 ④ 암탉

with
생각

몇몇 바리사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위협에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겠다고 당당히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암탉이 새끼를 따뜻하게 품어 기르듯이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셨지만,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예루살렘의 미래를 예언하며 탄식하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슬프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멸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은 오늘도 안타까워 탄식하고 계세요. 나의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14:7-14 “나를 낮출 때 높아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7.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8. “네가 누구에게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9.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10.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네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13.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14. 그러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만찬 :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은공 : 은혜와 공로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워 넣으세요. (11절)

“누구든지 를 높이면 것이요,
자기를 높아질 것이다.”

2.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불러 대접하면 누가 그 은혜를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셨나요? (13, 14절)



with
생각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며 나를 스스로 높일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나를 낮출 때 비로소 내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려 주셨어요. 또 사람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할 때에도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과 같이 다시 나를 초대해 나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 대접하면 그들은 나에게 되갚아 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우, 귀한 대접을 받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잘해 줄 때에도 ‘내가 이렇게 도와 주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지?’ 또는 ‘이 사람도 나중에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낮추어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시며 높여 주실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를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만 높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 사무엘하 22:2 -



유드
WITH

10월 넷째주

2021년 10월 24일~30일



memory time



다윗의 회개

넷째주

♥ 주제 : 다윗

♥ 암송구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13

♥ 오늘의 주제 : 다윗의 회개 ▷사무엘하 11:1-12:25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해요..

★ 말씀 나눔

- ① 다윗이 저지른 죄는 무엇이었나요? (9절)

여호와의 말씀을 ○ ㅅ ○ ㄱ

- ②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13절)

ㅎ ㄱ

★ 교육활동 - “믿음 바로 세우기”

준비물 - 활동지(별지), 가위, 펜

- ① 종이와 펜을 준비해요.
- ②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은 얼마나 읽었는지,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나쁜말은 쓰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요.
- ③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다짐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SI

Family Time



♥ 주제 : 다윗

♥ 암송구절 :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13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다윗의 회개 ▷사무엘하 11:1-12:25

다윗은 저녁때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그 여인은 다윗의 군대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뱃세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여인을 사랑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서 죽이라는 계획을 꾸몄지요. 결국 우리아 장군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뱃세바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나쁜 일을 한 다윗을 크게 꾸짖으셨지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크게 후회했어요. 자신이 가진 마음이 욕심인 줄 알면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결국 그 일로 우리아 장군까지 죽이게 되었던 일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비록 죄를 지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Q 1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Pray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4:15-24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사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5.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6.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17.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18.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쟁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19. 다른 사람은 '내가 겨우소 다섯 쌍을 쟁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려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20.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1.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 오너라' 하였다.
22.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23.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얹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장가: 남자가 결혼하여
아내를 맞는 일

with
관찰

1.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대기 시작했나요? (18절)



2.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 넣으세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 [] 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다 [] [] 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with
생각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분은 바로 하나님 이에요. 구원의 잔치를 열어 많은 유대인들을 초대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이 구원의 기회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결국 당시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겼던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큰길과 산 울타리에 사는 이방인 들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with
결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처럼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구원의 잔치를 기대하며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문의 사람들처럼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데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4:25-35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5.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6.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29.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30.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 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32. 당해 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33.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4.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35.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망대: 적이나 주위의 상태
를 살피기 위해 높이 세운
곳

비용: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

사신: 다른 나라로 보내는
신하

화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냄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무엇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나요? (26절)



2.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무엇을 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나요? (33절)



with
생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로 자기의 가족,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셋째로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with
결심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자기의 가족,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진짜로 미워하고 싫어하여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나의 평안과 나의 성공을 더 중요히, 우선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의 가족, 나의 생명, 나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다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2021.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5:1-10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2.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5.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8.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닢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9.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1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드라크마: 고대 그리스도의 화폐 단위(은화)

with
관찰

1.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에 관한 비유였나요? (4, 8절)

- ① 잃어버린 양 - 잃어버린 드라크마
- ② 잃어버린 소 - 잃어버린 은화
- ③ 잃어버린 닭 - 잃어버린 금화
- ④ 되찾은 소 - 되찾은 아들

2. 말씀을 읽고 다음의 빙칸을 채워보세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같이 □□ 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with
생각

바리새파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불편하게 생각하고 투덜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노력하여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시고 이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며 싫어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고, 때로는 잘 몰라서 죄인이 되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에서 미움을 받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비유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 자신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함께 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5:11-24 “돌아온 작은 아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12.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14.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15.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17.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19.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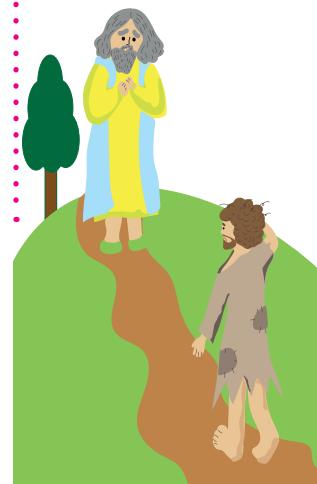
Check

Q. 단어사전

방탕: 행실이 좋지 못함

탕진: 돈을 다 써서 없앰

궁핍: 몹시 가난함



1.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뜻을 먼저 받아 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다 낭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2-14절)



2.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나요? (20-24절)

- ① 재산을 모두 낭비한 아들을 꾸짖었다.
- ②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받아 들여 주었다.
- ③ 돌아온 작은 아들을 껴안고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다.
- ④ 작은 아들을 모른 체 하였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중에 받을 유산 중 자신의 뜻을 미리 분배받아 먼 지방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지요. 흥분이 들어 일할 곳도, 먹을 것도 없어지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으니 종으로라도 써주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멀리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본 아버지는 달려 나와 아들을 안아주고 반겨주었어요. 새 옷, 좋은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고 큰 기쁨의 잔치를 벌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일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그 많은 유산을 자기가 즐기는 일에 낭비하여 다 없애버리고 다시 돌아온다니 크게 혼나거나 쫓겨남을 당 한다해도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며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오늘 본 문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작은 아들과 같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 우리를 기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반겨주세요. 죄를 지어 마음이 어려울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한줄 기도 :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 사무엘하 22:2 -





10월 다섯째주

2021년 10월 31일~11월 6일



memory time

성전을 준비한
다윗

다섯째주

♥ 주제 : 다윗

♥ 암송구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역대상 22:10

♥ 오늘의 주제 성전을 준비한 다윗 ▷역대상 22:10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9절)

ㅍ ㅇ 과 ㅇ ㅇ ㅎ

② 솔로몬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나요? (10절)

ㅇ ㄹ

★ 교육활동 - “내 마음의 중심”을 드려요

- ① “내 마음의 중심” 노래를 함께 불러보아요.
- ②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처럼 예배드려요.
- ③ 내 마음을 지키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다짐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KSTORY

Family Time



♥ 주제 : 다윗

♥ 암송구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역대상 22:10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성전을 준비한 다윗 ▶역대상 22:10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외국인과 석공들을 부르고, 각종 귀한 재료들을 모았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건축할 성전은 웅장하고 모든 나라들에 널리 알려지고 그 위엄을 드러내야 한다고 솔로몬에게 말했지요.

사실 다윗은 직접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면 이스라엘이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니,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구하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해요.



Q 1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Pray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GOD'S TIME

다섯째주

1

with
말씀

누가복음 15:25-32 “화가 난 큰 아들.”

날짜: 2021.

부모님 확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5.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26.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 보았다.
27.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28.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29.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 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31.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32.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작은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벌이자 누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났나요? (28절)

2. 말씀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으세요. (32절)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with
생각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은 재산을 낭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께 ‘자신은 몇 년이나 아버지의 일을 도와 드리고,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노느라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십니까?’하고 따졌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네 것이다.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자.”

with
결심

큰아들은 늘 아버지의 일을 돋고, 한 번도 재산을 허비하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온 작은 아들이 한심해 보이고, 그런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까지 열어주는 아버지에게 불평을 할 만 하다 생각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큰아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참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어떠하든 한결같이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함께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었지요. 하나님도 오늘 본문의 아버지와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내가 먼저 선한 일을 시작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다섯째주

날짜: 2021.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6:19-31 “부자와 거지 나사로”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현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현데를 핥았다.
22.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23.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26.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현데 : 부스럼, 종기

호사 : 호화롭게 사치함

**with
관찰**

1. 부자 집 대문 앞에서 살던 거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0절)



2.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되었나요? (22절)

- ①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었다.
- ② 지옥에서 고통당하였다.
- ③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 ④ 원래 있던 부자 집 대문 앞에서 계속 살게 되었다.

**with
생각**

한 부자가 있었어요. 고급 원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맛있고 귀한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지요.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는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부자는 거지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그 둘은 죽게 되었고, 거지는 죽어서 천국으로 갔지만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부자가 자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천국을 보니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많은 호화로움을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겪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with
결심**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부자는 이 땅의 삶에 가치를 두고 자신이 가진 재산, 소유를 자기가 편하게 살아가는 데에만 사용하였어요. 그저 현재를 즐기느라 고 죽음 이후의 삶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내가 가진 재산, 소유, 물질, 능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돋고, 나눠주고,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 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천국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먼저 도와주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다섯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7:1-4 “스스로 조심해야 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2.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4. 그가 네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1. 믿음의 형제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 주라고 하셨나요? (3절)



2.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 넣으세요. (4절)

“그가 네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서

‘ ’ 하면, 너는 해 주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먼저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기’ 하지 않아야 해요. 걸려 넘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유혹해 죄악에 빠지게 하는 나쁜 일을 말해요. 둘째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충고와 조언을 해주고, 잘못한 일로 나에게 사과를 할 때에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 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며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늘 나의 행동을 살펴 죄악 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또 누군가 죄를 저지를 때 내 일이 아니라고, 귀찮다고, 모른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사랑의 충고를 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스스로 조심하여 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제자 된 나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한줄 기도 :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가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다섯째주

날짜: 2021.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7:5-10 “믿음으로 선포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5.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7.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8.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 애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9.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동이다: 끈이나 줄로
묶어 매다

시중: 옆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는 일

**with
관찰**

1.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무엇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나요? (6절)

- ① 수박씨 한 알
③ 겨자씨 한 알

- ② 호박씨 한 알
④ 포도씨 한 알

2. 예수님께서는 양을 치는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하셨나요?
말씀을 읽고 빙칸을 채워 넣으세요. (10절)

“.... 우리는 을
하였을 뿐입니다.”

**with
생각**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라고 요청하는 사도들에게 믿음의 성장 비결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말로 선포하는 (“뽕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은 실제로 행해지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삶이 되어갈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성장한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일을 하고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에요.

**with
결심**

겨자씨를 본 적이 있나요? 겨자씨는 문장의 마침표를 찍을 때 쓰는 ‘.’←이 마침표 만큼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작고,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 보세요.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이 훌륭하게 성장 되어질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믿음으로 선포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시편 16편 7-11절, 새번역>

7.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8.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9.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10.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OO(아)야, 잘 잣니?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어. 다윗은 두려운 상황,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하였어. 나의 삶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지. 그러했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삶에 기쁨이 넘친다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OO(이)와 우리 가족 모두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거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OO(이)와 우리 가족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찬양을 들려/읽어 주세요.
-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이럴까 저럴까> - 파이디온 선교회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 마음의 나침반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예수님처럼 선택해

사랑하는 OO(아)야, 오늘 하루는 어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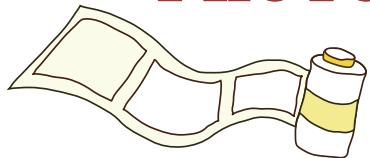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돼. 그럴 때 지혜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향을 선택해야 하지만 때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는 잘 알지 못해서 좋지 않은 방향을 선택할 때도 있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나의 지혜와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른 찬양처럼 바로 예수님께 기도 하는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말이지. 자 함께 기도하자.

지혜의 하나님,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을 만나게 될 때 먼저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리석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드 PHOTO



A yellow-themed page featuring several photo frames. In the top left frame, a boy in a blue shirt is writing in a notebook. In the top right frame, a boy in a green shirt is writing in a notebook. There are two large empty frames at the bottom, one on each side. A small black coffee cup is positioned between the two bottom frames. A cartoon owl is peeking from behind the rightmost frame. Various Korean text labels identify the sections: "유년부" (Youth Department) in blue, "유년1부" (Youth 1st Department) in green, "유년2부" (Youth 2nd Department) in red, and "1-2 조민준" (Jomin Jun 1-2) below the right photo. The page is decorated with colorful stars and a small plant in the bottom right corner.



10월

제목 : 춤바람

글 : 박종진

그림 : 송선옥

출판사 : 소원나무



봄이 찾아온 수목원에 놀러 간 선동이와 율동이. 봄에 어울리는 꽃과 나무로 가득한 수목원에서 엄마는 아이들보다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름다운 꽃밭 앞에서 아이들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진을 찍기 싫었던 율동이는 엄마가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마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방해를 합니다. 무슨 일인지 선동이 표정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눈치가 보였던 엄마는 얼른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들을 재촉합니다. 눈치 없는 선동이, 유통이 형제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화가 난 엄마가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어휴, 됐어. 찍지 마!” 모처럼 나온 가족 나들이를 망치기 딱 좋은 순간, 화가 난 엄마에게 선동이가 슬며시 다가가 유통이를 데리고 사진을 잘 찍으면 원하는 것을 사 달라는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엄마와 거래가 이루어진 뒤 선동이는 유통이에게 속삭입니다. “유통아, 우리 춤바람 놀이 할래? 그러니까……” 이어진 선동이의 춤사위를 시작으로 선동이와 유통이의 신나는 춤바람이 시작됩니다.

책 《춤바람》 속에는 꽃을 닮은 춤 10가지가 나와요. 나비춤, 곰춤, 접시춤 등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신나게 춤을 췄어요. 다윗이 췄던 춤이 《춤바람》 책 속에도 나올까요? 다윗은 어떤 춤을 췄던 것일까요?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춘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10월 STICKER

Bible
study!

유년()부, ()학년,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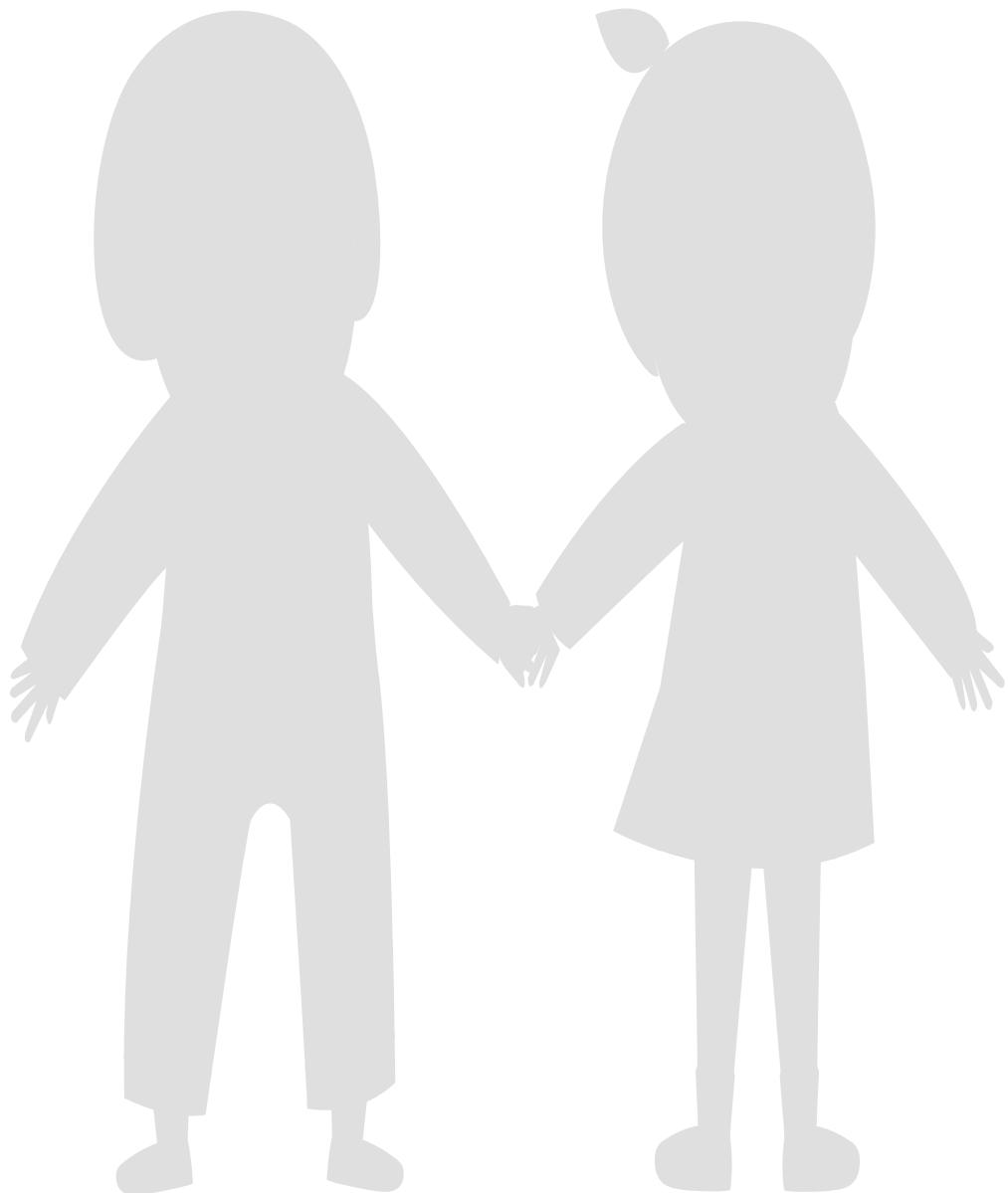
이름 :



	QT	QT	QT	QT	
1주	●	●	●	●	●
2주	●	●	●	●	●
3주	●	●	●	●	●
4주	●	●	●	●	●
5주	●	●	●	●	●

10월 첫째 주

“믿음안의 우정”



내 마음의 중심

작곡 : 김에스더, 이혜인
 작사 : 김에스더, 이혜인
 편곡 : 김에스더, 이혜인
 노래 : 자혜

내 마음의 중심엔 뭐가 있을까
 조그맣고 연약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가득 채워볼래요
 나의 목자되시는 나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세요
 주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주께서 맡긴 일 최선을 다했던
 다윗처럼 새롭게 내 마음을 지키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세요
 주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주께서 맡긴 일 최선을 다했던
 다윗처럼 새롭게 내 마음을 지키겠어요



